



2014년 추석명절 가정예배 순서지



예배안내

추석 명절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소천하신 가족의 어른들을 추모하고 생전에 그분들의 믿음과 삶을 생각하며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과 가족간에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 가족 중 한 분(가장)이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 예배시 다음과 같은 일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분께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조상을 위해 제사상을 차리는 일은 삼가 주십시오. 제사상에 절하는 일과 조상들의 명복을 비는 일은 삼가 주십시오.

▶ 예배를 다 마친 후에는 가족들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해 주십시오.

예배 순서

| | |
|------|--|
| 목도 |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 사도신경 | (가족 모두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
| 찬송가 | 찬송가 559장(구 305장)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가정에서 즐겨 부르거나 좋아하는 찬송가를 같이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중 대표자 한 분이 기도합니다.) |
| 말씀 | (딤후 1장 12-20절) 가족 모두가 같이 봉독합니다. 12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훈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4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16 그러나 내가 공훈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8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써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20 그 가운데 후매내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려 하려 함이라. |
| 설교 | (가족 대표) |
| 기도 | (설교를 마친 후 기도하거나 또는 가족의 기도제목으로 합심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 후 대표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
| 찬송가 | 찬송가 384장(구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
| 주기도문 |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대표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하셔서 추석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가족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에 가치를 두기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아 다시 한 번 가족 안에 귀한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거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영혼을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영혼을 기억하며 아픔과 고통을 나누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명하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함께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아멘-

설교문
- 감사의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를 더하고 더하라' 고 합니다. 2014년 추석 명절을 맞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의 축복을 회상하며 말씀을 나누며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 “감사한 마음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 번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솟아오르는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 하도록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기에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자였지만 용서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온전한 구원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그의 감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단점을 알았기 때문에 장점으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취한 일들보다 그가 지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의 공훈과 자비가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닌 모든 참된 성도의 공통적인 체험이며 고백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첫째,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겸손이요,

둘째, 이렇게 큰 죄인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는 겸손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 감사의 깊은 원천이 됩니다. 이런 신앙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과거의 비천했던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가정은 언제나 감사한 마음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많은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붕괴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졌고 도덕이 파괴되어갑니다. 모든 민족이 소동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나라와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희망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향해 온통 원망과 함성으로 난리 치는 세상에서 먼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2014년 추석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교회와 이 어지러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다시 감사한 마음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 5:18)
- 신봉길 목사(해외선교부)